



I am Sister Brigid Marie Grandey and I have lived a happy, fulfilling life as a Sister of Charity for 66 years. I was born in Rochester, Pennsylvania, and had one brother, Dick. Because of my Dad's job transfers, I attended four different grade schools in Ohio, Pennsylvania and Maryland. When it was time for

high school, my Dad was transferred to Pittsburgh where I was led to Sacred Heart High School and to the Sisters of Charity.

Since 1953 my ministry has been in education. Saint Elizabeth Ann Seton wrote that we are "to prepare students to transform that world in which they are destined to live." I am totally

committed to this concept and believe firmly in the call to lead young people, not only on the path of truth and learning, but also to guide them to the love of God and of other people in this world.



I have taught fifth grade through high school and college. I am a high school English teacher, and I enjoyed teaching English, but moved into administration and was an administrator in several high schools. Being

a principal was probably my favorite job. Later I worked in the Schools Office in the Diocese of Pittsburgh. Presently I am at Seton LaSalle High School as coordinator of Academic Support; I work also in the administration.

I served on the Provincial Council for five years and enjoyed that, including my work as administrator of Caritas Christi.

I am grateful to the Congregation for the spiritual and educational opportunities I received. I have enjoyed all the houses in which I have lived, and the committees on



which I have served. I am grateful for friends I have made in the community. I am glad to have lived in Arizona and in California as well as in Pittsburgh and Greensburg. I was very happy to attend Federation meetings, to visit Korea twice and for travel doing Mission Appeals.

"It's a wonderful life" I have lived and hope to continue into the future.



브리짓 마리 그랜디 수녀(Sister Brigid Marie Grandey)입니다.

사랑의 수녀로서 66 년 동안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왔어요. 저는 펜실베이니아 주 로체스터(Rochester)에서 태어났고 남자 형제(Dick) 한



명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직장을 옮기시는 바람에 오하이오 주와 펜실베이니아 주, 메릴랜드 주에 있는 네 군데의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는 고등학생 때 아버지가 다시 피츠버그로 이직을 하시면서 저는 세크레드 하트 고등학교(Sacred Heart High School)로 진학을 했고 사랑의 씨튼 수녀회에 입회하게 되었지요.

저는 1953 년부터 교육 사도직을 해왔습니다. 성녀 엘리사벳 앤 씨튼은 '우리는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이 살아가야 하는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준비시켜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마더 씨튼의 이 말씀에 온전히 투신하면서 젊은이들을 진리와 배움의 길로 이끌어 줄 뿐만 아니라 하느님 사랑과 이 세상의 다른 이들의 사랑으로 인도하는 소명에 대해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요.



저는 고등학교에서 5 학년 학생들을 가르치고 대학에서도 가르쳤어요. 고등학교 영어선생님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좋아했지만 행정직으로 옮겨 여러 고등학교에서 학교행정을 담당했답니다. 하지만 교장으로 일을 했던 것이 가장 좋았어요. 이후에는 피츠버그 교구의 교육청에서도 일을

했구요. 지금은 씨튼 라살 고등학교(Seton LaSalle High School)에서 학습지원(Academic Support) 코디네이터를 맡고 있으며 행정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또, 관구 이사로서 5 년 동안 봉사하면서 까리타스 크리스티의 행정책임자로도 즐겁게 일을 했지요.



저에게 영적 기회와 교육의 기회를 주신 수도회에 감사드리고 또한 공동체 안의 친구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제가 살았던

모든 공동체와 봉사했던 위원회에서도 참 즐거웠어요. 피츠버그와 그린스버그 뿐 아니라 애리조나와 캘리포니아에서 살았던 것도 좋았고 연합회 회의에 참석한 일과 한국을 두 번이나 방문하고 선교모금을 다녔던 일도 저에게는 큰 행복이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삶은 '멋진 삶'이었지요. 그리고 미래에도 그 삶이 계속되기를 희망합니다.